



## HEADLINE NEWS

### 하네다 공항 국제화 추진 (동경)

東京都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 109개 항목의 제안 및 요구 사항을 발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네다(羽田) 국내선 공항의 국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東京都는 단기적으로 심야 및 새벽에 국제 전세기나 국제 비즈니스편을 취항하고, 장기적으로는 나리타 등 수도권 공항들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정기편을 취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기타 수도권 신공항의 사업화 촉진,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수용법 개정, 수도(首都) 이전 방침 철회, 미군기지 관련 대책 수립, 폐기물 재활용·대기오염 대책 강화 등을 함께 요구 사항에 담았다.

한편, 운수성은 지난 3월 하네다 공항 국제화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나리타 공항이 있는 지바현도 나리타 공항의 제2활주로 조기 완성을 주장하고 있어, 東京都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日本經濟新聞, 6. 21)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런던과 뉴욕 비교연구 보고서 발간 (런던)
- ② 지역사회의 환경적·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자연 및 「오픈스페이스」 관리계획 수립 (오타와)
- ③ '문화도시 비전' 수립 (동경)
- ④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우수관망 관리 (호주: 아들레이드)

### 도시환경

- ⑤ 쓰레기 청소 업무를 23개 특별구로 이관 (동경)
- ⑥ Fast Food 기름을 버스연료로 사용 (신시내티)
- ⑦ 재활용품 분류방법 및 고비용으로 인한 쓰레기 재활용률 저조 (뉴욕)

### 도시교통

- ⑧ 도심 지하유료터널 건설계획 발표 (샌프란시스코)
- ⑨ 자가용 공유 프로그램 도입 (시애틀)

### 사회복지

- ⑩ '식품안전 안내서' 발간 (홍콩)
- ⑪ 잠상인 및 구걸자 출입금지구역 지정 (올란드)

### 행.재정

- ⑫ 재무·회계비용 절감을 위한 'PRIMA 2000' 프로젝트 착수 (로스앤젤레스)
- ⑬ 'Budget on-line'을 통한 예산안 편성과정 및 관련정보 공개 (로스앤젤레스)
- ⑭ 무료상담요원 배치로 벤처기업 판로개척 지원 (요코하마)

### ① 런던과 뉴욕 비교연구 보고서 발간 (런던)

런던시가 최근 펴낸 런던과 뉴욕 비교연구 보고서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런던과 뉴욕이 21세기를 맞아 직면하게 될 쟁점이나 도전들을 두 도시의 현황 및 추세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구·노동력·소득, 주요 경제 추세, 대도시 지역, 금융, 기업, 방문객 및 호텔, 방송·영화 등 미디어, 교통, 경제발전, 행정의 10개 분야를 런던, 뉴욕, 공통 주제 및 쟁점의 3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두 도시를 비교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처럼 서울 및 동경, 북경, 평양 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www.cityoflondon.gov.uk/col/economic/research.htm](http://www.cityoflondon.gov.uk/col/economic/research.htm))

### ② 지역사회의 환경적·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자연 및 「오픈스페이스」 관리계획 수립 (오타와)

오타와시는 최근 지역사회의 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도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오픈스페이스」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연적 특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는 습지, 산림, 공공 공간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정형화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오타와 생태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복원의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취약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 ESA)으로 지정하여 공식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생태보호지구 용도지정을 통해 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토록 하고 있다.

([www.city.ottawa.on.ca/ottawa/city/web/g/g4](http://www.city.ottawa.on.ca/ottawa/city/web/g/g4))

### 3 '문화도시 비전' 수립 (동경)

東京都는 활력이 넘치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都民, 예술문화단체 등과 협력하여 최근 '문화도시 비전'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도시에 대한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문화도시 비전 5개항은 ① 국제적인 예술문화 교류의 중심이 되는 도시 ② 넉넉한 문화 활동이 꽃피는 도시 ③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창조, 그리고 전통의 첨단에 서있는 도시 ④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도시 ⑤ 문화를 축으로 한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도시기능이 새롭게 갱신하는 도시이다. 이번 비전 수립은 동경이 국제적인 대도시이자 일본의 수도로서 근대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런던, 뉴욕, 파리 등과 같이 뚜렷한 문화적 개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www.metro.tokyo.jp](http://www.metro.tokyo.jp))

### 4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우수관망 관리 (호주 : 아들레이드)

최근 남부 호주의 대도시 아들레이드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기존의 우수관망(雨水管網) 관리로는 그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호주 지자체 중 최초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우수관망 관리를 위해 우수관망 수치지도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앞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자체에 필요한 홍수 및 수질오염에 관한 다양한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즉, 폭우로 인한 강우가 우수관망을 따라 흘러가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 인접 오염원과의 관계 및 영향을 밝힐 수 있고,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홍수로 인한 영향도 분석할 수 있으며 재질, 경사, 크기, 공사연도 등의 입력정보를 통해 우수관망시설 자체에 관한 관리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www.gisworld.com/asiapac/2000/0400/0400stm.asp](http://www.gisworld.com/asiapac/2000/0400/0400stm.asp))

### 5] 쓰레기 청소 업무를 23개 특별구로 이관 (동경)

東京都는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청소국에서 수행하던 23개 특별구의 청소사업을 지난 4월 1일부터 자치구로 이관하였다. 이 조치 이후 각 특별구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전담하며, 소각시설과 같은 중간처리시설은 새롭게 결성된 「東京23區清掃一部事務組合」이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구 및 사무조합들간의 업무조정엔 「東京23區清掃協議會」가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東京都는 특별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자 모든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인 매립지를 설치·관리·운영하고, 각 특별구의 재활용사업·산업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재정적·기술적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보고·허가·지도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tokyo23.seisou.or.jp/topix/1\\_ikan.htm](http://tokyo23.seisou.or.jp/topix/1_ikan.htm))

### 6] Fast Food 기름을 버스연료로 사용 (신시내티)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에서는 최근 「패스트 푸드」에서 나오는 기름과 디젤을 섞은 혼합연료가 석유연료보다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에 따라, 이를 디젤연료 대신 버스연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이 연간 약 300억 갤론의 식물성 기름을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버스연료로 활용하게 되면 석유연료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깨끗한 배기가스의 생성과 저비용 버스운행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dispatch.com/news/newsfea00/jul00/343306.html](http://www.dispatch.com/news/newsfea00/jul00/343306.html))

### 7 재활용품 분류방법 및 고비용으로 인한 쓰레기 재활용률 저조 (뉴욕)

뉴욕시는 재활용품을 최대 12종류로 구분하여 배출토록 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거공간의 협소함을 고려해 11년 전 재활용제도를 채택한 이후 줄곧 2종류로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함에 따라 쓰레기 재활용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민들은 재활용품을 마분지, 종이상자, 신문지 등의 종이류와 금속류, 유리, 플라스틱 우유병 및 주스병 등의 기타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폐기되는 재활용품도 많기 때문에 포트랜드나 미네아폴리스 등 대다수 도시들이 쓰레기의 40~50%를 재활용하는 데 반해, 뉴욕시는 단지 쓰레기의 20%만을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의 하루 평균 13,000톤의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2,400톤이며, 이 중 1,300톤이 종이이다. 그런데 재활용 가능 쓰레기 중 1/3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쓰레기로 매립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의 재활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고비용도 한몫 한다. 현재 톤당 재활용 비용은 314달러 수준이며, 이중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재활용 불가능한 것을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170달러에 달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쓰레기의 60%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뉴욕시 당국도 교육과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2002년에는 25%까지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www.nytimes.com/library/national/regional/062700ny-recycle.html](http://www.nytimes.com/library/national/regional/062700ny-recycle.html))

(The New York Times, 6. 27)

### 8 도심 지하유료터널 건설계획 발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시 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3개의 지하유료터널을 도심에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교통혼잡이 극심한 도로에서 장거리 통과교통을 유료화된 지하터널로 분리함으로써 일반 도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서비스 도로로서 자전거 및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프랑스의 리옹, 마르세이유, 노르웨이의 오슬로, 호주의 멜버른 등지에서도 도시내 유료지하터널이 유사한 목적으로 건설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길이가 5km가 넘는 긴 터널이다.

터널 건설은 민자유치로 추진되며, 요금은 2달러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지만, 혼잡 정도에 따라 차등 징수될 수도 있다. 실제 요금 징수는 전자자동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수대 부근의 혼잡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터널 건설 계획이 미연방 고속도로청에서 ‘교통형평법 21’ (Transportation Equity Act 21)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도로유료화’(Value Pricing) 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 수행시 무상으로 연방정부의 자금과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San Francisco Chronicle, 5. 18)

### 9 자가용 공유 프로그램 도입 (시애틀)

현재 시애틀의 일부 주민들은 자가용을 소유하는 대신 ‘Flexcar’라는 자가용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가용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높은 가솔린 가격의 부담을 덜고 인구밀집지역의 혼잡 완화를 위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1월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애틀에서는 현재 370명의 참여자가 지정된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차문 열쇠는 운전자들이 각각 가지고 다니며, 시동 열쇠는 정해진 암호를 입력해야만 열 수 있는 차량 안의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운행 중에 연료가 4분의 1 정도가 되면 운전자는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Flexcar 카드를 이용해 연료를 채워 넣는다. 만일 운전자가 차량을 더럽히면 20달러와 청소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차량을 지정된 시각보다 늦게 갖다 놓는 경우에도 20달러의 벌금과 다음 운전자의 택시비를 부담해야 한다. ([www.aashto.org/journal/a\\_j.html](http://www.aashto.org/journal/a_j.html))

## 📖 '식품안전 안내서' 발간 (홍콩)

홍콩의 식품 및 환경위생과(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식품안전 안내서'(Food Safety Bulletins)를 창간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유전자조작 식품, 초밥과 생선회를 먹을 때의 안전수칙, 식품의 영양 및 성분 등 기초정보를 알려주는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내용 등이 수록되었다. 이 안내서는 일반시민용과 식품매매상인용의 2가지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분기마다 발간될 예정이다. 일반시민용은 식품 및 환경위생과 지역사무실, 공공도서관이나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으며, 상인용은 식품 및 환경위생과로부터 면허를 받은 식품상에게만 배포될 예정이다. 이들 보고서의 내용은 식품 및 환경위생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www.info.gov.hk/gia/general/200007/08/0708131.htm](http://www.info.gov.hk/gia/general/200007/08/0708131.htm))

## 📖 잡상인 및 구걸자 출입금지구역 지정 (올란도)

올란도시 의회는 조만간 도심지의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잡상인의 상행위 및 부랑자의 구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공연장 및 경기장 입장권 판매와 선전물 배포 등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고 한다.

([orlandosentinel.com/automagic/news/2000-07-10/NWSDtown10071000.html](http://orlandosentinel.com/automagic/news/2000-07-10/NWSDtown10071000.html))

### 재무·회계비용 절감을 위한 'PRIMA 2000' 프로젝트 착수 (L.A)

로스앤젤레스시는 새천년을 맞아 방만한 도시경영을 간소화하고, 시민위주의 생산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구매(Purchase), 조달(Receiving), 재고관리 및 회계(Inventory Management and Accounts payable) 등 일련의 제반 과정을 과학화하는 'PRIMA 2000'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서작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공급업체와 공무원간 불협화음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물품공급기능 집중화와 행정부서의 다단계 승인과정 축소를 위한 물품서비스 행정조직 구축, 운반비용 절감과 적기 공급을 위한 물품관리, 비용지불기간 단축을 위한 회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www.ci.la.ca.us/prima/brochure](http://www.ci.la.ca.us/prima/brochure))

### 'Budget on-line' 을 통한 예산안 편성과정 및 관련정보 공개 (L.A)

로스앤젤레스시는 현재 시장이 제안한 2000~2001 회계연도 예산안과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내용을 담은 'Budget on-line'이라는 별도의 웹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 페이지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활용된 제반 관련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시민들도 이 웹 페이지를 통해 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예산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the City Budget)에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장 및 예산특별위원회, 시의회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이 웹 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될 예정이다. ([www.lacity.org/bgonline](http://www.lacity.org/bgonline))

### 무료상담요원 배치로 벤처기업 판로개척 지원 (요코하마)

요코하마시는 최근 제조업이나 상사 퇴직자를 벤처기업으로 파견하여 판로개척 등을 조언하는 '요코하마시 벤처 매니저먼트 제도' 요원을 기존의 1.7배인 116명으로 늘려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요코하마시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한 회사당 세 번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 신용보증협회의 특별보증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이 원활해짐에 따라, 무료상담요원들은 주로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보다 매출액 제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7. 5)